

불멸의 명작 ... 다시 보는 즐거움



‘이터널 선사인’ 관객 6만명 넘어서 최다 관객 기록
14일 광주극장 ‘아마데우스’ 감독관 1회 특별 상영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렛미인’ ‘영웅본색’ 대기

‘불멸의 명작, 그 감동을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지난 2005년 개봉한 미셸 공드리에의 ‘이터널 선사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이다. 기억과 사랑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즐거움과 아름다운 영상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마스크’ 등을 통해 코믹 배우로만 인식됐던 짐 캐리의 또 다른 모습과 케이트 윈슬렛, 커스틴 던스트의 명연까지 어우러지며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지난 5일 10년만에 다시 개봉한 ‘이터널 선사인’이 누적 관객 6만명을 넘어서며 재개봉 영화 사상 최다 관객을 기록했다.
최근 몇년 사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음질과 화질 등을 개선, 과거의 명작들을 다시 상영하는 재개봉 붐이 일고 있다.
2005년 개봉 당시 17만명을 동원했던 ‘이터널 선사인’은 개봉 첫 주만에 지금까지 재개봉 영화 중 최대 흥행작이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기록(5만 6425명)

을 넘어섰다.
‘이터널 선사인’은 영국 가디언지 선정 역사상 최고의 로맨스, 올해 BBC가 주관한 미국영화 100선 가운데 2000년대 이후 멜로 장르 1위를 차지했다. 현재 CGV 광주 터미널과 상무점에서 상영 중이다.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밀로스 포만의 명작 ‘아마데우스’는 광주극장에서 한 차례(14일 오후 3시30분) 상영된다. ‘레퀴엠’, 오페라 ‘마술피리’ 교향곡 25번 등 모차르트의 주옥같은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아마데우스’는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아카데미 작품상 등 8개 부문, 그래미상 최우수 클래식 레코딩상을 수상했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20분이 추가된 감독판 180분 버전으로 상영돼 영화팬과 클래식 팬들의 관심이 높다.
19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롯데 시네마와 광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잊혀가던 쿠바 음악을 되살리기 위해 나선 미국 프로듀서 라이 쿠더가 숨겨져 있던 쿠바의 실력과 뮤지션들을 찾아내 녹음한 앨범으로 성공을 이뤄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칸영화제 3관왕에 빛나는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빡센 감독의 대표작으로, 이번 상영작은 2012년 설립된 ‘빈번디스 재단’의 복원 작업을 통해 디지털 리마스터링됐다. 영화에서는 그래픽, 빌보드, 카네기홀을 휩쓴 쿠바 가장 뮤지션들이 펼쳐는 최고의 공연, 최고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27일에는 홍콩 영화 ‘영웅본색’ 3부작이 상영된다. 1987년 첫 선을 보인 ‘영웅본색’은 오우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적룡, 주윤발, 장국영 등이 출

연했다. 주윤발의 바바리 코트, 성남기비 등 술한 화제를 만들어낸 작품으로 배우의 연기와 어우러진 음악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12월 3일 다시 관객들을 만나는 스웨덴 영화 ‘렛미인’은 12살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의 우정과 사랑을 담은 작품이다. 스산한 스웨덴 겨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답고 가슴 아린 이야기와 영화 전반을 감싸는 서늘한 매력에 인상적이다.
그밖에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피아노의 숲’도 다시 영화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숲속에 버려진 피아노가 유일한 친구인 천재 카이와 동경에서 전학 온 아마미야 슈헤이가 피아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 ‘별장’ 13~14일·27~28일 열린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11월, 대인예술시장 ‘별장’이 둘째주(13~14일)와 넷째주(27~28일) 주말에 찾아온다.
11월 별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식 개관(25일)에 맞춰 ‘빛의 숲’을 주제로 열린다. 거리마다 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빛의 숲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13일 금요일에는 부산문화재단 ‘감만할매합창단’ 초청공연이 이루어진다. ‘감만할매합창단’은 부산 감만동에 거주하는 18명의 할머니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의 합창 연습을 지도한 감만창의문화촌상
주작가팀 ‘오페라컴퍼니’의 성악공연도 이어진다.
다양한 거리공연도 열린다. 박문종 작가의 ‘눈·밭 퍼포먼스’, 2분만에 그림을 맨 손으로 그려내는 이춘기 작가의 ‘스피드 페인팅 퍼포먼스’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또 포크락 그룹 ‘옥희삼촌’, 포크트리오 ‘우물안 개구리’, 싱어송라이터 ‘어니’, 청계천 음악가 ‘조준’, 핑거스타일 기타연주 ‘스타카토 리퍼블릭’ 등 뮤지션들이 공연도 열린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국악놀이터’

14일 남도소리울림터
특히 가야금병창 ‘풍년노래’, ‘꽃타령’ 등은 어린이 단원 20여 명이 출연, 가야금 연주와 더불어 맛깔스런 소리를 자아낼 예정이다. 판소리 수궁가 일부를 재구성한 창극 ‘상좌다들’이 공연된다.
그밖에 최승희 선생이 창작한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소리춤’과 화려한 전통 타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얕은반사물놀이’ 또한 눈여겨볼만한 작품이다.
전석 무료. 예약 및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팝스팝스 최정원과 함께’ 예비석 100석 추가 모집

광산문화예술회관, 오늘부터
광주 광산구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팝스팝스 뮤지컬배우 최정원(사진)과 함께’ 공연 예비석 100석을 12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연 좌석은 모두 500석으로 지난 6일부터 선착순 접수 받아 정원이 찾지만 공연 문의가 이어지고 ‘무로 관람’의 경우 관람 신청을 한 이들이 일부 참여하지 않는 점을 감안 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공연은 최선용 리나이팝스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온누리합창단이 출연한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트럼펫의 경쾌함을 느낄 수 있는 니니 로소의 ‘밤하늘의 트럼펫’, ‘아빠의 청춘’, ‘고래사냥’ 등 추억의 한국영화 메들리도 연주한다. 최정원은 ‘나가거든’, ‘The winner takes it all’ 등을 들려준다. 문의 062-960-88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대신프리모 남가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신프리모 남가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